



010120 (KS) 기계

LS ELECTRIC

AI 데이터센터가 여는 배전·송전 동시 성장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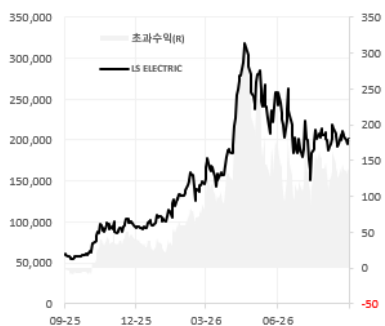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9/17 일)	202,000 원
시가총액	30,300.0 십억
자본금	150.0 십억
발행주식수	150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51.0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335,000 원
52 주 최저가	53,8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564 억원
외국인 지분율	18.6 %

주가



북미 데이터센터 수주가 배전 성장을 가속한다

북미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동사는 2026 년 2 분기 매출 1 조 5,770 억원, 영업이익 1,785 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신규수주도 약 2.1 조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북미 빅테크항 수주가 배전반·고압배전시스템·배전변압기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8 월에는 기존 계약이 확대되며 2,309 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했다. 단납기 배전기기의 특성상 수주 증가가 비교적 빠르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초고압 증설과 미국 현지화가 물량 성장을 연다

배전 중심의 성장에 초고압 변압기와 미국 현지 생산능력이 더해지고 있다. 부산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은 LS 파워솔루션 인수와 증설을 통해 빠르게 확대됐으며, 북미에서는 유타 생산거점에 2,500 억원을 투자해 배전 솔루션 생산능력을 연간 5,000 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 유타 공장은 생산뿐 아니라 설계와 R&D 까지 수행하는 현지 거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초고압과 배전기기를 동시에 확대하면서 2027 년부터는 판가·믹스 개선에 물량 증가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AC 에서 DC 까지 전력솔루션 성장축이 넓어진다

동사의 차별화는 초고압 변압기보다 배전기기·전력시스템·HVDC·DC 배전까지 이어지는 포트폴리오에 있다. 천안 DC 팩토리를 기반으로 SST 와 SSCB, DC/DC 변환기 등 차세대 직류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HVDC 변환밸브 국산화도 추진 중이다. 9 월에는 KT 클라우드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협력을 시작해 초고압변압기·GIS·수배전반까지 공급 범위를 넓혔다.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구조가 AC 와 DC 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될수록 시스템 단위의 공급금액을 키울 수 있는 구조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4,230.5	4,551.8	4,965.8	6,541.5	8,009.9
영업이익 (십억원)	324.9	389.7	426.4	720.0	1,036.9
영업이익률 (%)	7.7	8.6	8.6	11.0	12.9
순이익 (십억원)	206.0	238.7	286.6	540.7	784.6
EPS (원)	1,373	1,591	1,911	3,605	5,231
PER (배)	10.7	20.2	48.2	56.0	38.6
PBR (배)	1.3	2.6	6.6	12.1	9.7
ROE (%)	12.6	13.4	14.7	23.8	28.1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19940711

[한장으로 정리하는 LS ELECTRIC]

010120 (KS) 기계

LS ELECTRIC

AI 데이터센터가 여는 배전·송전 동시 성장

- 북미 데이터센터 수주가 배전 성장을 가속한다
- 초고압 증설과 미국 현지화가 물량 성장을 연다
- 세 개의 AI 성장축이 이익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동시에 만든다

투자의견
Not Rated
(미제시)

 현재주가 202,000원	 시가총액 30.30조원	 외국인 지분율 18.6 %	 2027E 영업이익 1.04조원
---	--	--	---

1 북미 데이터센터 수주 → 배전 성장 가속



- ✓ 2026년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 ✓ 영업이익 1,785억원·분기 최대 실적
- ✓ 8월 2,309억원 추가 공급물량 확보

북미 데이터센터향 반복 수주

2 초고압 증설·미국 현지화 → 물량 성장



- ✓ 부산 초고압 변압기 증설
- ✓ 유타 생산거점 2,500억원 투자
- ✓ 배전 솔루션 생산능력 연 5,000억원 확대

초고압·미국 생산능력 동시 확대

3 세 개의 AI 성장축



- ✓ 천안 DC 팩토리 기반 SST·SSCB·DC/DC 개발
- ✓ HVDC 변환밸브 국산화 추진
- ✓ KT클라우드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협력

배전 + 초고압 + DC 포트폴리오

4 투자 체크포인트



- ✓ 2026E OPM 11.0% → 2027E 12.9%
- ✓ 판가·믹스 개선에 물량 증가 추가
- ✓ 실적 성장 → 기업가치 재평가

실적 성장 → 기업가치 재평가

Company Data		Stock Data		52주 주가범위	
현재주가 (9/17일)	202,000원	52주 최고가	335,000원	53,800원	335,000원
시가총액	30,300.0 십억	52주 최저가	53,800원	(52주 최저가)	(52주 최고가)
자본금	150.0 십억	일평균거래액(60일)	1,564 억원	202,000원	(현재주가)
발행주식수	150 백만주	외국인 지분율	18.6 %		
유동주식비율	51.0 %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4,230.5	4,551.8	4,965.8	6,541.5	8,009.9
영업이익 (십억원)	324.9	389.7	426.4	720.0	1,036.9
영업이익률 (%)	7.7	8.6	8.6	11.0	12.9
순이익 (십억원)	206.0	238.7	286.6	540.7	784.6
EPS (원)	1,373	1,591	1,911	3,605	5,231
PER (배)	10.7	20.2	48.2	56.0	38.6
PBR (배)	1.3	2.6	6.6	12.1	9.7
ROE (%)	12.6	13.4	14.7	23.8	28.1

자료: FnGuide(Quant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1994.07.11

북미 수주와 증설이
2027년 이익을 높인다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은 1조 5,770 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85 억원으로 64.4% 늘었다. 영업이익률도 9.1%에서 11.3%로 상승했다. 전력사업 매출은 약 1.09 조 원, 영업이익은 약 1,370 억원으로 실적 개선의 대부분을 담당했다. 외형 성장보다 이익 증가가 더 빠르다는 점에서 북미 배전기기와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고부가 제품 믹스가 본격적으로 이익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수주 증가 속도는 실적보다 더 빠르다. 2분기 신규수주는 약 2.1조원, 수주잔고는 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상반기 수주 호조를 바탕으로 연간 신규수주 목표도 기존 4조 원대에서 6~6.5조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북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단발성 계약에서 증액·후속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배전반과 배전변압기는 초고압기기보다 납기가 짧아 현재 확보한 수주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매출에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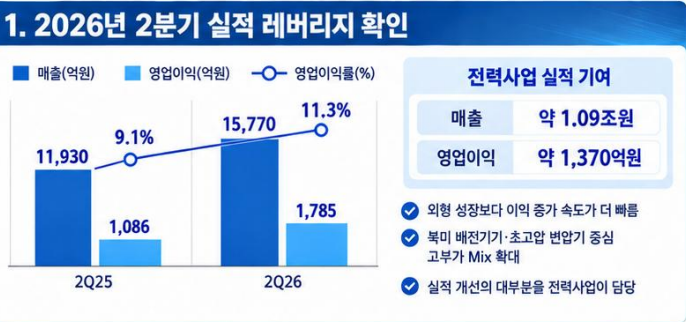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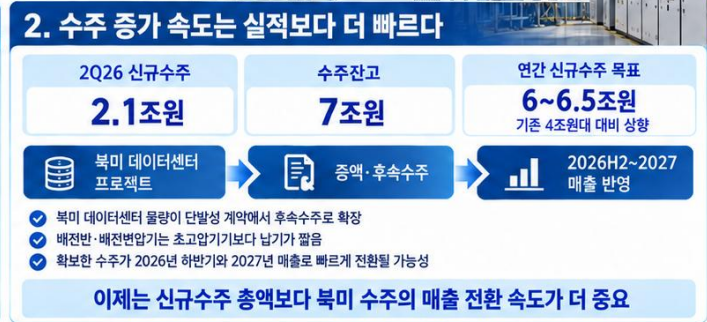
생산능력도 수요 증가에 맞춰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청주 1 사업장의 가동률은 96.4%로 높은 수준이지만 청주 2는 66.5%, 부산은 69.9%로 증설 이후 추가 물량을 흡수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유타 공장이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면서 북미 배전기기의 현지 대응능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초고압 생산능력과 미국 배전 생산능력이 동시에 확대된다는 점에서 2027년부터는 수주 증가 → 생산량 확대 → 매출 성장의 연결고리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6년 매출은 6.16~6.69조원, 영업이익은 7,150~7,42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고, 2027년에는 매출 7.58~8.28조원, 영업이익 1.05~1.06조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2027년에는 북미 데이터센터용 배전기기 매출 확대와 국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 증가, 유타 공장 증설 효과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1조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이익 성장의 핵심은 단순 신규수주 규모보다 북미 데이터센터 수주의 매출 전환 속도와 증설 이후 물량 증가, 초고압 변압기의 고마진 유지 여부에 있다.

수주잔고와 증설이 만드는 이익 레벨업

북미 수주와 증설이 2027년 이익을 높인다

LS ELECTRIC의 핵심은 북미 배전기기·초고압 변압기 중심 고부가 수주와 국내·미국 증설에 있다



배전에서 초고압·DC까지 성장축이 넓어진다

전력기기 산업의 핵심 진입장벽은 장기간 축적된 품질 신뢰성과 고객 인증이다. 동사는 초고압부터 저압까지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 시험·검증 체계와 글로벌 규격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R&D 비용은 847억원, 매출 대비 2.9% 수준이며 국내외 특허만 약 5,152건을 보유하고 있다. 차단기·변압기뿐 아니라 DC 전력망, 전력변환, 스마트팩토리까지 연구 범위가 넓어 단순 제조업체보다 전력·자동화 기술 플랫폼에 가까운 구조이다.

배전기기와 초고압 변압기를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데이터센터는 수전단의 초고압 변압기부터 GIS, 고압·저압 배전반, 차단기, 배전변압기까지 여러 단계의 전력설비가 동시에 필요하다. 동사는 기존 배전기기 강점에 부산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추가하면서 공급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빅테크 수주도 단일 제품보다 여러 전력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9월 KT 클라우드와의 협력 역시 이 같은 패키지 공급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다음 성장축은 DC 전력망이다. 동사는 천안 DC 팩토리를 통해 SST, SSCB, DC/DC 컨버터와 같은 직류 전력기기를 실제 환경에서 실증하고 있으며, 기존 AC 방식 대비 전력변환 단계를 줄여 효율을 높이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동시에 5,610억원 규모 동해안·동서울 HVDC 변환설비 사업과 GE 버노바와의 전압형 HVDC 기술협력을 통해 고압 직류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실적은 여전히 배전·초고압 제품이 중심이지만 DC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고객 기반에 새로운 성장축이 추가될 수 있다.

향후 확인해야 할 변수는 네 가지다. 첫째, 북미 데이터센터 수주가 기존 고객의 후속계약을 넘어 신규 빅테크 고객으로 확대되는지 여부다. 둘째, 유타와 국내 증설이 계획대로 가동돼 수주잔고를 실제 매출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전기동 등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화 속에서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ST·SSCB·HVDC 등 DC 포트폴리오가 기술개발을 넘어 의미 있는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장기 밸류에이션을 결정한다. 현재는 배전의 빠른 매출전환과 초고압의 높은 수익성, DC의 신규 성장옵션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으로 판단한다.

배전·초고압·DC로 이어지는 전력솔루션 확장

배전에서 초고압·DC까지 성장축이 넓어진다

LS ELECTRIC의 핵심은 배전기기·초고압 변압기·DC 전력망 확장으로 전력 인프라 전반의 공급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



1. 진입장벽의 핵심은 품질 신뢰성과 고객 인증

- ✓ 초고압부터 저압까지 전력기기 공급
- ✓ 자체 시험·검증 체계와 글로벌 규격 대응 역량 확보
- ✓ 차단기·변압기뿐 아니라 DC 전력망·전력변환·스마트팩토리까지 연구범위 확대
- ✓ 단순 제조업체보다 전력·자동화 기술 플랫폼에 가까운 구조

기술 경쟁력의 본질 = 장기간 축적된 신뢰성과 고객 인증

2. 배전기기와 초고압을 함께 공급한다

- 초고압 변압기 → GIS → 고압·저압 배전반 → 차단기 → 배전변압기
- ✓ 데이터센터는 수전단부터 최종 부하단까지 다단계 전력설비 필요
- ✓ 빅테크 수주도 단일 제품보다 패키지 공급 방향으로 확대
- ✓ 기존 배전기기 강점 + 부산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 추가
- ✓ KT클라우드 협력은 패키지 공급 전략 강화의 계기

공급 범위 확대 = 고객당 매출 확대 가능성

3. 다음 성장축은 DC 전력망

- SST: 반도체 변압기 (Solid State Transformer)
- SSCB: 직류 차단기 (Solid State Circuit Breaker)
- DC/DC 컨버터: 직류 전력변환 장치
- HVDC: 고압직류 송전시스템
- ✓ 천안 DC 팩토리에서 직류 전력기기 실증 진행
- ✓ 기존 AC 대비 전력변환 단계 축소 → 효율 개선
- ✓ 동해안·동서울 HVDC 변환설비 사업 5,610억원
- ✓ GE Vernova와 전압형 HVDC 기술협력

현재 실적은 배전·초고압이 중심, DC는 장기 성장 옵션

4. 향후 확인할 4대 변수

- 북미 데이터센터 수주가 후속계약을 넘어 신규 빅테크 고객으로 확대되는가
- 유타와 국내 증설이 계획대로 가동돼 수주잔고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가
- 원재료 가격·환율 변화 속에서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가
- SST·SSCB·HVDC 등 DC 포트폴리오가 기술개발을 넘어 의미 있는 매출로 연결되는가

배전의 빠른 매출전환 + 초고압의 높은 수익성 + DC의 신규 성장옵션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일 시	2026. 09. 21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가격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 ~ +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목표주가를 산정하지 않을 시에는 투자의견을 "Not Rated"로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Analyst 김성식

現 독립리서치 핀릿 연구원

전 티에프엠 연구원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성식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